동아시아문화연구 제75집 | 79~116쪽 | 2018.11

일제하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임용을 둘러싼 논란*

박찬승**

〈차 례〉

1. 머리말
2.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수
3. 고액 봉급의 일본인 교원의 임용
4. 일본인 교원의 가봉 등 추가수당
5. 조선인측의 일본인 교원 임용에 대한 비판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하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인 언론이나 학교비평의회, 부회 등에서 조선인 의원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룬 것이다.

첫째,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지나치게 많이 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19년 이후 '3면 1교'정책으로, 1929년 이후 '1면 1교' 정책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1938년 이후에는 학급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립보통학교에 채용된 일본인 교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1910~45년 사이 일본인 교원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27~48% 정도를 차지하였다.

둘째, 공립보통학교에 임용된 일본인 교원들이 학력과 경력면에서 조선인 교원보다 우세한 고액 봉급자들이어서 학교비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의 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건너온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15년의 소학교 교원 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호봉은 조선인 교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인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충원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24년으로, 조선의 교원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출신들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 사학과 교수

는 교원을 다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약 70% 추정)의 일본의 사범학교 출신들이 교원으로 영입되었다. 제2기는 1925년부터 1937년까지로, 조선에서도 관립(경성, 대구, 평양) 및 공립(도립) 사범학교 보통과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신규 교원의 다수를 점하고, 소수의 교원들이 일본에서 영입되던 시기였다. 제3기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로, '초등교육확충계획'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보통학교의 학급수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매년 1천 명이 넘는 일본인 교원이 본국 영입자와 조선 내 관립사범학교 출신자로 충원되었다.

셋째,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교원들은 조선인 교원들과는 달리 가봉, 사택료, 벽지수당 등을 받고 있었다. 조선인 언론과 학교비평의회원들은 일본인 훈도와 교장들이 받는 '가봉'으로 인하여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재원인 '학교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인 훈도와 교장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본인 교원의 수를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30% 내외로 계속 유지하였으며, 1942년에는 48%까지 올렸다. 총독부가 조선 내 일본인 교원들을 판임관으로 임명하여 '가봉'의 특혜를 베푼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궁극 목적인 '동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인 교원은 그러한 '동화교육'의 첨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일본인 교원, 일본인 교장, 가봉, 학교비평의회

1. 머리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의 초등학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로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교의 명칭도 일본인 학교는 공립소학교로 되어 있었고, 조선인 학교는 공립보통학교와 사립보통학교, 사립각종학교로 되어 있었다.[1] 1938년에 이르러 조선인들의 '보통학교'의 명칭은 일본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학교'로 개칭되었고(1941년에 다시 '국민학교'로 개칭) 일본인-조선인 공학제(共學制)가 허용되었지만, 각 학교의 학생 구성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는 학생 구성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원 구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들이 다니던 공립소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원이 일본인이었고, 조선인들이 다니던 공립보통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인 교원이 3분의 2, 일본인 교원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2] 그러나 일본인 교원들은 공립보통

1) 사립각종학교는 다시 초등 정도와 중등 정도의 학교로 나뉜다. 또 각종학교는 다시 일반 각종학교와 종교 각종학교로 나뉜다. 일본인들이 세워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던 각종학교도 소수지만 있었다.
2) 이 글에서 말하는 보통학교 교원은 일반교원인 훈도(訓導)와 교장을 모두 포함한다.

학교에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학교 교육을 주도했다.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은 1918년까지 전원 일본인이었고, 1919년 이후에도 학교 교장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일본인은 교장 외에도 학감, 주임 등 학교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사실상 학교 운영을 주도하였다.

일본인 교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보다는 일본 학계에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방면의 선구적인 연구자라 할 수 있는 이나바 쓰기오(稻葉繼雄)는 통감부시기와 식민지기 조선의 각급 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이력을 출신지역별로 정리하는 등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3] 이를 이어받아 혼마 치카게(本間千景)가 통감부 시기 일본인 교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4] 그리고 야마시타 다쓰야(山下達也)가 식민지기 조선의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교원의 양성과정, '내지' 체험, 일본인 교원의 포지션, 교원집단과 식민지지배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5] 또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양성에 대해서는 박영규가 자세한 정리와 분석을 진행했다.[6]

국내에서는 김성학과 안홍선이 주로 일본인 교원을 양성한 경성사범학교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7] 그리고 최근 들어 김광규가 조선인과 일본인 교원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제국기부터 식민지시기에 걸친 교원시험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1910년대 조선인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1910년대 조선의 일본인 교원의 양성과 인사배치에 대한 연구, 관공립 보통학교의 교장 인사와 조선인 교장 연구 등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의 양성과 선발, 임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8] 또 나카바야시 히로카즈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일본인 교원에 대한 통제 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9]

---

3) 稻葉繼雄, 『舊韓國~朝鮮の日本人教員』(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2001).
4) 本間千景, 『韓國'併合'前後の教育政策と日本』(京都 : 思文閣出版, 2010).
5)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の學校教員-初等教員集團と植民地支配』(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2011).
6)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に關する研究」(博士論文, 九州大學 大學院 人間環境學府, 2005).
7)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훈육의 성격」,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집(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방법론 연구」, 『교육사학연구』 15(교육사학회, 2005).
8) 金廣珪, 「근대개혁기~일제강점기 교원시험의 변천」, 『역사교육』 132(역사교육연구회, 2014);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1921) 조선인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연구』 25(역사학연구소, 2013); 「1910년대 재조선 일본인 교원의 양성과 인사」, 『한국교육사학』 제39권 제3호(한국교육사학회, 2017); 「근대개혁기~일제강점기 관공립 초등학교 교장 인사와 조선인 교장」, 『한국교육사학』 제37권 제3호(한국교육사학회, 2015).

이와 같이 일본인 교원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1920, 30년대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본인 교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 교원의 임용, 특히 교장 임용을 둘러싸고 조선인 언론과 각 군의 학교비평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이 글에서는 당시 일본인 교원의 임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어떤 배경 하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반대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진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문에서 보겠지만, 조선인측의 일본인 교원 임용 반대는 주로 일본인 교원의 고액봉급과 가봉, 사택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조선인들은 이와 같은 고액의 봉급과 가봉 등을 받는 일본인 교원을 다수 임용하는 경우, 보통학교의 재정을 담당하는 학교비에 큰 부담을 주고, 이것은 결국 더 많은 학생들을 보통학교에 취학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인 교원 임용에 대한 반대 여론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인 교원의 문제를 천착한 야마시타 다쓰야는 일본인 교원의 가봉이나 사택료 문제를 일본인・조선인 교원간의 차별대우와 양자 간의 갈등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을 뿐,[10]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반대 여론의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일본인 교원의 수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1937년까지만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11] 이에 의하면 일본인 교원의 수는 조선인 교원의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1940년대 초반까지 일본 본토로부터의 일본인 교원의 초빙은 크게 늘어나 공립보통학교 전체 교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또 그는 교원의 양성과정에 따라 교원 내에도 여러 등급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으나,[12] 일본인 교원이 학력이나 경력에서 우세하여 고액 봉급자들이었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각 장의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한편 조선인 학생들도 동맹휴학으로 일본인 교원을 배척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9)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재조일본인 교원 통제 : 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57집(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0) 山下達也, 앞의 책, 58~63면.
11) 위의 책, 28~30면.
12) 위의 책, 211~213면.

글에서 다루었고, 또 학생들은 임용 과정에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임용 이후 수업과 관련하여 일본인 교원을 배척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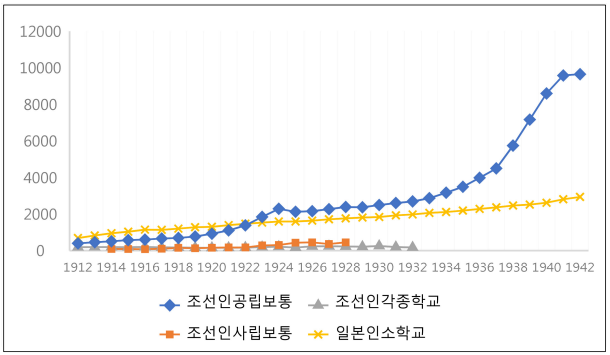
이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 조선총독부의 『관보』와 『총독부직원록』,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의 기사 등이다.

2.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수

식민지 조선의 초등학교는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로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교의 명칭도 일본인 학교는 공립소학교, 조선인 학교는 공립보통학교와 사립보통학교와 사립 각종학교로 되어 있었다. 1938년에 이르러 조선인들의 보통학교의 명칭은 일본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학교로 개칭되었고(1941년에 다시 '국민학교'로 개칭), 일-조 공학제가 허용되었지만, 학생 구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일제 말기까지 사실상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원 구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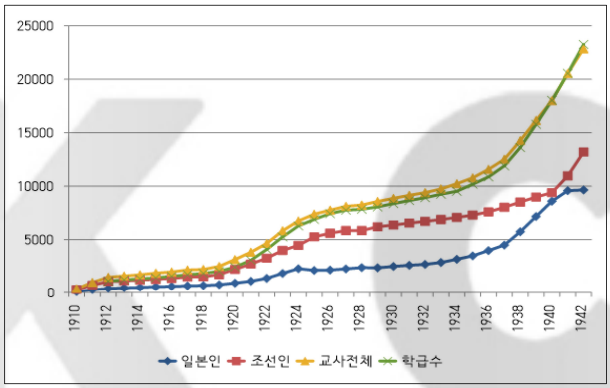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원수

* 자료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 비고 :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사립보통학교와 각종학교는 각각 1929년, 1933년 이후 일본인, 조선인 구분이 없이 전체 교원만을 표기하고 있다.



13) 박찬승,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 『역사와 현실』 104집(한국역사연구회, 2017.6).

〈그림 1〉에서 보듯이 식민지 조선의 초등학교 가운데 일본인 교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1910년대까지는 일본인 소학교였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조선인 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 1919년 이후 '3면 1교' 정책으로 조선인 초등학교, 구체적으로는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인 소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1942년에 2,936명까지 늘어났고,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9,654명까지 늘어났다. 그래프에서 보면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 1940년대 초에 절정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공립보통학교의
학급수, 교원수

*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2〉에서 보듯이 공립보통학교의 전체 교원수는 학급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거의 같은 수로 증가하였다. 학급의 담임을 맡을 교원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립보통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10년대에는 40~44명, 1920년대에는 44~58명, 1930년대 이후에는 59~77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교원수는 학생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학급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시기는 1920년대 전반과 1930년대 후반인데, 같은 시기에 보통학교 교원수도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일본인 교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나오는 일본인 교원과 조선인 교원의 백분비를 살펴보면, 1910년대부터 1936년도까지 일본인 교원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27%에서 34% 사이, 즉 3분의 1 내외를 유지했는데,[14] 1940년(당시는 공립소학교)에는 47.8%까지 치솟았다. 보통학교 교원의 거의 반수를 일본인이 차지했던 것이다.

한편 공립보통학교의 운영 책임을 맡는 교장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1910년 이후 1918년까지 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전원 일본인이었고, 1919년 10월에 18명의 조선인 교원이 처음으로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1925년에는 조선인 교장의 정원이 59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조선인 교장은 1929년에 32명, 1932년에 40명으로, 각 도에 2~3명에 불과하였다.[15] 193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인 교원을 벽지 농촌학교의 '교장사무취급'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250곳 정도 있었지만, 정식 교장은 여전히 소수였다.[16] 숫자로 보면, 일본인 교장은 전체 공립보통학교 교장의 85% 이상을 항상 점하였다.

그러면 이들 일본인 교장은 전체 일본인 교원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였을까. 1932년의 경우, 1,980개의 공립보통학교에 재직 중인 일본인 교원은 2,689명이었다. 약 300명 정도의 조선인 교장과 교장사무취급 사례를 제외하면, 약 1,680명의 일본인 교장이 있었다.[17] 그렇다면 일본인 교원 가운데 62.5%가 교장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군 단위의 사례를 보자. 1930년경 전남 순천군의 공립보통학교 9개에는 일본인 교장 9명을 포함한 일본인 남자교원 12명과 여자교원 3명, 조선인 남자교원 27명과 여자교원 2명이 있었다.[18] 일본인 교원 15명 가운데 9명, 즉 60%는 교장이었다. 나주군의 공립보통학교 12개 학교를 보면, 일본인 교원으로 남자가 15명, 여자가 2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남자 교장이 10명이었다. 그리고 조선인 교원으로 남자가 37명, 여자가 2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남자 교장이 2명이었다. 일본인 교원 17명 가운데 교장이 1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58.8%에 해당한다.[19] 이러한 예들을 통해 1930년대 초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 가운데 약 60%가 교장의 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14) 주요섭은 『동아일보』 1930년 9월 13일자에 기고한 「조선교육의 결함(9)」이란 글에서 "공립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약 3할 가량을 꼭 임명한다는 것이 아마 총독부의 일정한 방침인가보다. 그것은 歷年의 통계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 18년간 동일한 방침을 취한 것을 보면, 그곳에 무슨 확정된 내규가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15) 김광규, 앞의 논문(2015), 21면.

16) 1932년 교장 1천8백여 명 가운데, 조선인 교장은 40여 명이었으며, 조선인으로 '교장사무취급'의 임명을 받은 교원은 256명이었다. 「千八百餘 普校에 조선인 교장 불과 사십」, 『동아일보』(1932.9.20).

17) 1926년 당시 공립보통학교 교장은 일본인이 1천4백인, 조선인이 43인 있었다고 한다. 「주요섭, 조선교육의 결함(9)」, 『동아일보』(1930.9.13).

18) 1920년대 후반에 개설된 면 소재지의 보통학교의 경우, 일본인 교원 1명과 조선인 교원 2~3명밖에 없고, 일본인 교원 1명이 교장과 훈도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전남 순천군의 9개 읍면 가운데 7개 면이 그러한 경우였다. 染川覺太郎編, 『全南事情誌』(전라남도사정지간행위원회, 1930), 591~592면.

19) 위의 책, 876~879면.

3. 고액 봉급의 일본인 교원의 임용

1)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임용 과정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어떻게 채용되었을까.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자.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보면, 1910년 병합 이전에 이미 일본으로부터 상당수의 교원이 들어와 1910년 81명에 달하였다.[20] 그리고 1919년에는 769명에 달하였다. 이들 일본인 교원은 어떻게 임용되었을까.

우선 주목할 것은 '임시교원양성소'이다. 1910년대 임시교원양성소는 3개가 설치되었다. 경성중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는 조선의 일본인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1911년에 개설되어 1920년까지 유지되었으며, 수업연한은 1년, 정원은 30명 전후였다. 입소 자격은 중학교 졸업생으로, 나이 17세 이상이었다.[21]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는 보통학교 조선인 남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1911년에 개설되었다.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입소 자격은 나이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1년 이상 수료자였다. 1913년에는 보통학교의 조선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수업연한 3년) 외에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제2부(수업연한 1년)가 개설되었다. 제2부의 입소 자격은 나이 17세 이상의 중학교 졸업 이상의 일본인 남자였다. 그런데 1913년 이후 경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가 개설되어 제1부의 존속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1916년 제1부는 폐지되고 제2부만 남았다. 제2부도 경성사범학교가 개설되자 1921년에 폐지되었다. 정원은 제1부가 100명이었고, 제2부는 30명 전후였다. 한편 1919~21년 사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통학교의 일본인 여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임시여자교원양성소가 있었다. 수업연한은 1년, 입학자격은 16세 이상으로 고등여학교나 실과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여성이었다.[22]

---

20) 本間千景의 연구에 의하면, 1910년 당시 관립 및 갑종 학교에 81명, 을종 학교에 9명, 보조지정교에 42명, 모두 합하여 132명의 일본인 초등학교 교원이 있었다고 한다. 本間千景, 앞의 책, 187면 참조.

21)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경성중학교 부설 소학교 교원양성소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은 1911년 27명, 1912년 26명, 1913년 29명, 1914년 34명, 1915년 33명, 1916년 35명, 1917년 34명, 1918년 34명, 1919년 23명, 1920년 23명으로 30명 안팎이었다.

22) 朴永奎, 앞의 논문, 53~55면.

<표 1> 경성중학교 및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의 일본인 입학자 상황

연도	경성중학교부속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경성고보부설 임시교원양성소 제2부				
	모집 정원	입학 지원자	입학자 출신별			모집 정원	입학 지원자	입학자 출신별		
			일본 본토 학교 출신	조선 학교 출신	계			일본 본토 학교 출신	조선 학교 출신	계
1914	35	390	32	3	35	34	239	34	0	34
1915	35	264	30	5	35	35	278	34	0	34

* 자료 :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7월 4일, 1915년 7월 12일.

〈표 1〉에서 보면, 1910년대에 일본 경성중학교나 경성고보에 부설된 임시교원양성소에 입학한 일본인 학생은 거의 대부분 일본 본토에서 중학교를 나온 경우였다.[23] 이들은 조선에 건너와 임시교원양성소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일본인 소학교나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었다.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던 당시 일본에서 교원이 되면 단기현역병이 되어 5개월의 군사훈련만을 받고 제대할 수 있었으며, 제대 후에 예비병역으로 편입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교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특혜였다.[24]

1910년대 조선인들이 다니는 공립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경성고보 부설 교원양성소 하나였고, 이곳에서는 일본인 졸업생이 매년 30명 정도 배출되었다.[25]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10년대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은 1911년에 190명, 1912년에 125명이 늘어났으나 이후 1919년까지는 30~77명 정도 늘어났다. 이 시기 경성고보 부설 교원양성소 출신 일본인은 매년 30명 정도 배출되어 이를 다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본인 교원은 일본 본토로부터 조선에 건너온 교원들로 충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관립사범학교 졸업생 수가

23) 1911년 조선총독부중학교(뒤의 경성중학교) 부속 임시교원양성소의 개설을 앞두고 총독부는 본토의 13대 중학교 교장에게 "졸업후 조선의 내지인 교육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김광규, 앞의 논문(2017), 27면 참조.

24) 伊藤勇, 『私の中の朝鮮』(東京 : むすげ舍, 1982), 36~37면. 이 책은 조선에서 교원을 지낸 伊藤勇의 회고록이다.

25)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은 1913년 37명, 1914년 33명, 1915년 34명, 1916년 27명, 1917년 22명, 1918년 31명, 1919년 51명으로 대체로 30명 안팎이었다.

적었던 1924년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에서 배출한 조선인 보통학교 교원은 경성고보 부설 교원양성소 235명, 경성사범학교 졸업생 429명, 공립사범학교 28명으로 모두 69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통계연보를 보면, 1924년 공립보통학교 교원 수는 2,283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중간 퇴직자를 논외로 한다면, 1,591명(약 70%)은 일본 본토에서 영입해온 교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교원들은 뒤에 보듯이 대개 부·현에 개설된 사범학교 출신으로, 의무근무 연한인 5년 이상 소학교에서 훈도 경력을 쌓은 이들이었다.

<표 2> 관공립 사범학교 학생수

연도	관립사범학교 학생수			공립사범학교 학생수			합계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계	
1921	105	8	113				113
1922	231	14	245	0	107	107	352
1923	384	38	422	27	1200	1227	1649
1924	462	54	516	64	1453	1517	2033
1925	557	235	792	54	1468	1522	2314
1926	609	163	772	75	1566	1641	2413
1927	605	156	761	86	1647	1733	2494
1928	579	172	751	81	1589	1670	2421
1929	571	185	756	41	795	836	1592
1930	615	628	1243				1243
1931	706	963	1669				1669
1932	712	1060	1772				1772
1933	753	1138	1891				1891
1934	795	1305	2100				2100
1935	951	1483	2434				2434
1936	1192	1980	3172				3172
1937	1574	2084	3658				3658
1938	2178	2781	4959				4959
1939	2475	3078	5553				5553
1940	2281	4410	6691				6691
1941	2081	5403	7484				7484
1942	2137	6033	8170				8170

* 자료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 비고 : 이 통계는 보통과, 심상과, 연습과, 강습과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관립사범학교를 개설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었다. 1921년에 관립 경성사범학교가 개설되고, 1929년에 대구와 평양에도 관립사범학교가 개설되었다. 관립사범학교는 수업연한 5년(여자는 4년)의 보통과를 본체로 하고, 그 외에도 수업연한 1년의 연습과(사범학교 보통과 수료생, 중학교 혹은 고등여학교 졸업생 대상), 수업연한 6개월 내지 1년의 강습과(현직 교원은 6개월,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년)를 두었다. 〈표 2〉에서 보듯이 1928년까지 경성사범학교만 있을 때에는 일본인 학생이 80~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구와 평양에 사범학교가 설치되고, 1930년대 이후 이들 두 학교에는 대부분 조선인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3개 관립사범학교의 조선인 학생수와 일본인 학생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곧 조선인 학생수가 더 많아졌다.

한편 1929년에 발행된 『경성사범학교총람』에 의하면, 당시 연습과(1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258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인은 173명(남 141명, 여 32명)이었다. 이들 173명 가운데 학부형이 일본 '내지'에 거주하는 자는 73명(남 71, 여 2)이었으며, 나머지 100명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보통과(5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497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인은 397명이었다. 이들 397명 가운데 학부형이 일본 '내지'에 거주하는 학생은 36명이며, 나머지 361명은 조선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26] 즉 연습과의 일본인 재학생 가운데 약 42%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학생이고, 보통과의 경우는 약 10%만이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학생이었다.

1921년에 개설된 관립경성사범학교 보통과 학생들은 5년 뒤에나 졸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3면 1교제를 시작하면서 우선 급히 부족한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1920년 5월 각 도에 임시교원양성소를 개설하여, 보통학교의 부훈도 또는 촉탁교원을 양성하였다. 이 제도는 1922년에 모두 폐지되고, 각 도에는 공립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27] 1922~1929년 사이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에는 일본인 학생들도 입학하였지만, 〈표 2〉에서 보듯이 그 수는 극히 적어 전체의 2.2~4.9%에 지나지 않았다.

---

26) 경성사범학교편, 『경성사범학교총람』 1(경성사범학교, 1929), 356~357면.

27) 공립사범학교는 충남에는 1922년, 나머지 12개도에는 1923년 설립되었다. 수업연한은 특과가 2~3년, 강습과는 1년으로, 특과를 수료하면 제2종 훈도, 강습과를 수료하면 제3종 훈도의 자격을 얻었다. 박영규, 앞의 논문, 86~106면 참조.

<표 3> 관공립 사범학교 졸업생수

연도	관립			공립			합계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계	일본인	조선인
1921	29	0	29	0	0	0	29	0
1922	129	1	130	0	55	55	129	56
1923	132	1	133	0	583	583	132	584
1924	139	3	142	28	744	772	167	747
1925	158	166	324	18	619	637	176	785
1926	231	66	297	11	444	455	242	510
1927	203	72	275	27	567	594	230	639
1928	181	76	257	31	574	605	212	650
1929	227	198	425	14	414	428	241	612
1930	181	256	437				181	256
1931	241	365	606				241	365
1932	243	333	576				243	333
1933	190	344	534				190	344
1934	360	534	894				360	534
1935	505	603	1108				505	603
1936	646	865	1511				646	865
1937	879	799	1678				879	799
1938	1017	922	1939				1017	922
1939	1254	895	2149				1254	895
1940	1089	1555	2644				1089	1555
1941	815	1852	2667				815	1852
1942	837	2339	3176				837	2339

* 자료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당시 관공립 사범학교에서 매년 졸업한 학생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표 3〉에 의하면, 관립 혹은 공립 사범학교를 졸업한 학생수는 1920년대에는 매년 600~800명 정도였다. 그 가운데 일본인 학생은 매년 100~200명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일본인 교원의 증원은 1922년에는 276명, 1923년에는 461명, 1924년에는 443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매년 일본 본토로부터 유입된 일본인 교원이 1백 내지 2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25년 이후 1929년까지는 3면 1교가 완성되어 더 이상 학교가 늘어나지 않아 일본인 교원의 증원도 별로 이루어지 않았다(1925년 -160명, 1926년 34명, 1927년 110명, 1928년 119명, 1929년 -18명). 이 시기에는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에서 너무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일시적이지만 공급과잉 현상이 문제가 되었다. 또 총독부는 조선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어서 일본어 실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교원 수요의 감소, 도 재정의 빈약, 조선인 학생들의 일본어능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1931년 3월말까지 각 도의 공립사범학교를 폐지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28]

총독부는 1929년부터 '1면 1교제' 실시를 내걸고 제1차 초등교육확대계획을 시작했다. 이는 1936년까지 진행되었는데, 당시의 일본인 교원 임용상황은 어떠했을까. 이 시기에 관립사범학교의 일본인 졸업생 수는 〈표 3〉에서 보듯이 1934년 190명에서 1935년 360명, 1936년 50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런데 앞서 〈그림 2〉에서 보았듯이 학급수는 1929~1934년까지는 매년 300개 정도 늘어났고, 1935~36년에는 매년 600~700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원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공립사범학교는 폐지되고 관립사범학교는 경성사범학교 외에 1929년에 새로 설치된 대구, 평양 사범학교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교원을 일본으로부터 다시 대거 영입해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935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교원이 부족되어 내지로부터 매년 2백여 명 내외를 초빙하는 형편"이라 하였는데,[29] 실제로 1935년, 1936년에는 약 2백 명의 일본인 교원을 초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 숫자로는 부족한 교원을 다 충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총독부는 1935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갑종 농업학교 졸업생 각각 250명을 모집하여 세 곳의 관립사범학교에서 강습하여 부족한 교원을 충당하기도 하였다.[30]

1937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제2차 초등교육확충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38년 초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갑자기 나머지 9년 동안의 계획을 5년으로 단축시켜 달성할 것을

28) 박영규, 앞의 논문, 107면.
29) 「교원이 태반 부족, 사범교 속속 증설, 내지에서 매년 2백명 초빙한다」, 『매일신보』(1935.11.1).
30) 「초등교원 대량 이입, 250명 강습시키고 계속 모집, 조선 내 사범교육이 화급」, 『동아일보』(1935.11.15).

지시함으로써 교원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1938년 4월부터 조선에서도 지원병제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초등교육 확충계획을 앞당긴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4월 신학기부터 매년 보통학교 학급수를 2,200학급씩 늘리고, 간이학교도 매년 220개씩 늘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교원 2천여 명과 자연감소 교원 1천여 명을 포함한 3천여 명의 교원이 매년 필요하게 되었다.[31] 그런데 1937년도까지 조선 내의 사범학교는 전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6개에 불과했고, 졸업생은 1936년 1,511명, 1937년 1,678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총독부는 일본 본토로부터 사범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교원들이나 사범학교 졸업생들을 데려오기로 했다.[32]

결국 1938년 이후 일본 본토로부터 일본인 교사가 대거 초빙되어 건너왔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1938년 봄에 657명이 건너왔고, 1939년 봄에도 약 7백 명의 교원이 건너왔다고 한다. 1942년 봄에도 516명의 초등교원이 건너왔다.[33] 그런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보면 일본인 교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1938년에 1,251명, 1939년에 1,426명, 1940년에 1,429명, 1941년에 986명이 늘어난 것이다.[34] 같은 시기 조선인 교원이 489명, 468명, 414명, 1,569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면, 1938~40년에 일본인 교원의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35] 이는 1930년대 관립사범학교가 크게 늘어나 1938년 이후 8~12개에 이르렀고, 〈표 3〉에서 보듯이, 이들 관립사범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본인이 1938년에 1,017명, 1939년 1,254명으로

31) 「초등교육의 大飛躍, 南總督의 일대 영단, 초등교육기관 대확충, 10년계획을 5년 단축」, 『매일신보』(1938.1.6).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보면, 학급수의 실제 증가는 1937년 1,033개, 1938년 1,713개, 1939년 2,169개, 1940년 2,245개, 1941년 2,511개, 1942년 2,708개로 나타난다.

32) 「교원 8백명을 주문, 교원이 부족해서 내지로 초빙」, 『매일신보』(1938.10.13).

33) 「내지로부터 轉入할 교원 6백명을 배치」, 『매일신보』(1938.3.25); 「명년에 2천학급 증가, 교원 8백 또 초빙」, 『매일신보』(1939.11.9); 「초중등교원 6백명 내지서 초빙키로. 문부성과 절충성립」, 『매일신보』(1942.2.24).

34) 1940~1941년 사이 일본인 남자 교원은 220명이 늘고, 여자 교원은 761명이 늘었다. 1941~42년 사이에 일본인 남자 교원은 626명이 줄고, 여자 교원은 694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남자교원에 비해 여자교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태평양전쟁의 발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래 공립보통학교 교원 가운데 여자 교원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1928년의 경우, 조선인 372명, 일본인 293명, 합 665명으로, 남자 교원 조선인 5,182명, 일본인 2,059명, 합 7,241명에 비교하면 크게 적었으며, 전체 7,906명의 8.4%에 지나지 않았다(『동아일보』 1928.11.24. 「男敎員 5천여 명에 女敎員은 불과 4백」).

35) 이 가운데에는 조선에서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이 된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36]

조선 안팎에서 충당된 일본인 교원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적어도 1942년까지 이어졌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일본에서 교원을 영입해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결국 조선의 사범학교에서 배출되는 일본인만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수도 점차 줄어들어 1943년 이후에는 부득이 더 많은 조선인으로 필요한 교원을 충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인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충원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24년으로, 조선의 교원양성소와 사범학교 연습과 출신들로는 교원을 다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토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 사범학교 출신 교원들을 영입하던 시기였다. 제2기는 1925년부터 1937년까지로, 조선에서도 관립사범학교 보통과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신규 교원의 다수를 점하고, 소수의 교원이 일본에서 영입되던 시기였다. 제3기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로, 제2기 초등교육확충계획이 진행되면서 특히 1938년부터 1942년까지는 매년 5백~7백 명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인 교원이 본토로부터 영입되었으며, 비슷한 수의 일본인 관립사범학교 졸업생들이 교원으로 충원된 시기였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식민지 초기와 말기에 그 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초기에는 식민지 조선의 초등학교의 체제를 일본인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말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났지만 조선인 교원 양성은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수의 일본인 교원을 본토로부터 영입한 것은 조선인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조선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 교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또 학력과 경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고액의 봉급자들이어서 학교비 예산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

36)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2년판, 225면 참조.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인원은 갑종 농업학교, 갑종 상업학교, 중학교 졸업생들을 사범학교 강습반에 수용하여 6개월 내지 1년간 교육한 뒤 보통학교(1938년 이후 소학교로 명칭이 바뀜)에 배치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하였다(「초등교원 부족 보충책, 강습과 확장, 속성주의, 명년도 신규교원 3천 명에 6백 명 부족」, 『동아일보』(1938.12.8)).

2) 고액봉급의 일본인 교원－함경남북도 교원의 학력과 경력

공립보통학교에 임용된 일본인 교원의 학력과 경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을까. 함경남북도의 일본인 교원들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그들의 학력과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함경남북도의 경우, 1910~2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들의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야나무라 기치조(梁村奇智城)가 편찬한 『신흥지북선사(新興之北鮮史)』(조선연구사, 1937)의 부록 「북선에 있어서의 주요한 인물」에는 당시 유력한 초·중등학교 교장들의 학력과 경력, 성향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또 하타모토 잇페이(畑本逸平)가 편찬한 『함경남도 사업과 인물 명감(咸鏡南道事業と人物名鑑)』(함남신보사, 1927)에도 일부 교장들의 학력과 경력 등이 실려 있다.

이들 자료에 실린 교원 가운데 보통학교 교장은 6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 가운데 교장은 약 6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교장의 위치에 오른 이들은 일본인 교원 가운데 특별한 이들이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함경남북도에서 교장을 지낸 이들의 이력을 통하여 당시 일본인 교원이 대체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당시 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미야자키현(宮崎縣), 구마모토현(熊本縣), 나가사키현(長崎縣),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오이타현(大分縣), 후쿠오카현(福岡縣), 사가현(佐賀縣) 등 규슈(九州)지역의 출신이 모두 21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혼슈(本州)의 야마구치현(山口縣), 아이치현(愛知縣), 이와테현(岩手縣), 나가노현(長野縣) 출신들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조선과 가까운 지역들이었다.

출생 연도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 48명 가운데 1880년대생이 12명, 1890년대생이 34명, 1900년대생이 2명으로, 1890년대생이 가장 많았다. 1930년대에 교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대체로 40대였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이미 20대 혹은 30대에 보통학교 혹은 소학교 교장이 된 이들도 있었다. 『신흥지북선사(新興之北鮮史)』와 『조선총독부 직원록』을 참고하여 경력을 추적해보면, 1893년생인 나가토모(長友眞喜哉)는 미야자키현(宮崎縣) 출신으로 1915년 22세 때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경기도 여주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가 되었으며, 3년 뒤인 1918년 25세 때에는 경기도 진위보통학교 교장이 되었다. 같은 1895년생인 무라모토(村本良友)는 이시카와현(石川縣) 출신으로 1916년 경성중학교 부설 교원양성소를 졸업하

고 함경북도의 청진공립소학교에서 훈도 생활을 시작하여 1920년에 일본인 학교인 생기령소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1894년생인 이마이(今井肇)는 1915년 경성중학교 교원양성소를 졸업한 뒤, 함경북도에서 훈도 생활을 시작하여 1920년 26세 때 무산공립소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1899년생인 히로세(廣瀨勝)는 구마모토현(熊本縣) 출신으로 1919년 구마모토 제2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 생활을 시작한 뒤, 1923년 조선에 건너와 나남공립소학교 훈도를 거쳐 1927년 28세 때 함북 고건원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이 되었다.[37]

조선에 건너온 이들 가운데에는 수는 적지만 일본에서 이미 20대에 소학교 교장이 된 이들도 있었다. 1897년생인 사사키(佐佐木謙市)는 히로시마현(廣島縣) 출신으로 히로시마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훈도 생활을 시작하여 1921년 24세에 히로시마현 안사군(安佐郡)에서 소학교 교장이 되었다. 1892년생인 야마시타(山下久男)도 1912년 나가사키(長崎)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훈도생활을 시작하여 1915년 23세에 나가사키현 미나미마쓰우라군(南松浦郡)에서 소학교 교장이 되었다.[38]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본토에 머무른 교원보다는 조선으로 건너온 이들의 교장 승진이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3면1교제, 1930년대에 1면1교제가 실시되면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들 학교의 교장은 대부분 일본인 교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60명 가운데 일본 각 부와 현에 개설된 사범학교의 졸업자가 4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일본 본토로부터 교원을 초빙할 때, 각 부・현에 현직 교원의 추천을 부탁했고, 당시 현직 교원의 대다수는 사범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1880~90년대 생인 이들은 1900~10년대에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각 부와 현에는 거의 모두 사범학교와 여자사범학교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교원은 해당 부 또는 현에서 지정하는 소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만 했다.[39] 따라서 5년의 의무연한이 끝난 뒤 조

37) 梁村奇智城편, 『新興之北鮮史』 부록 「북선에 있어서의 주요한 인물」, 11면, 130면, 144면; 『조선총독부 직원록』의 개인별 기록 참조.
38) 梁村奇智城편, 앞의 책, 128면, 132면.
39) 尋常師範学校卒業生服務規則(明治十九年五月二十八日文部省令第十一号) 참조.

선으로 건너오는 교원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다카마쓰(高松超造)는 1911년 야마구치현에서 사범학교를 1911년 봄에 졸업하고, 현 내의 여러 소학교에서 15년 간 훈도 및 교장을 역임한 뒤 1926년에 조선의 함경남도로 근무지를 옮겨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하였고, 이듬해 함흥제이공립보통학교 교장이 되었다.[40] 후카사와(深澤傳一郎)는 나가노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현의 소학교에서 훈도 및 교장으로 8년 간 근무한 뒤, 조선으로 건너와 평안북도 선천보통학교 훈도가 되었으며, 이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보통학교에서 교장을 맡았다.[41] 이처럼 사범학교 출신 교원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5~15년 정도의 교원 경력을 쌓고 조선에 건너왔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소학교 훈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47명 가운데 조선에 건너와 일단 일본인 학교인 소학교의 훈도가 된 경우가 28명이었다. 즉 조선에 건너와 일단 일본인 소학교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사정을 익힌 후, 조선인 학교인 보통학교로 전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측에서 조선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이들을 바로 조선인 학교인 보통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21명은 바로 조선인들의 보통학교에 배치되었다.

이들이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기간 소학교 근무경력을 쌓은 뒤 조선으로 건너온 시기는 1910년대~20년대였다. 그들이 가장 많이 건너온 시기는 1919~28년까지로, 39명이 이 시기에 조선에 건너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는 조선에서 3면 1교제가 실시되어 교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시기였다.

일본 각 부・현 사범학교 출신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일본이나 조선에서 중학을 졸업한 후, 경성중학교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한 경우(6명)와, 역시 일본이나 조선에서 중학을 졸업한 후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한 경우(5명)이었다. 그밖에 일본에서 교원양성소 또는 준교원양성소를 졸업한 경우(3명), 일본에서 교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1명), 경성사범학교 졸업생 1명, 일본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를 졸업한 경우(1명)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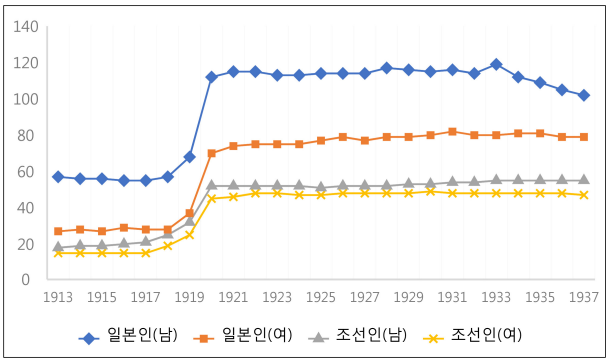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20, 30년대에 조선의 공립보통학교 교장 가운데에는

40) 梁村奇智城편, 앞의 책, 11면.
41) 위의 책, 18면.

일본에서 부·현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15년의 소학교 교원 경력을 가진 뒤, 1920년대에 조선으로 건너온 이들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범학교 졸업의 학력과 5년 이상 소학교 근무라는 경력으로 인해, 공립보통학교의 일반 교원 시절에도 조선인 교원들에 비해 호봉이 높았으며, 교장이 된 뒤에는 더욱 높았다. 또 본봉의 호봉이 높은 경우 본봉의 60%를 추가로 주는 가봉(뒤에 설명)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고급자(高給者 : 고액봉급자)'로 불리게 된다. 고액 봉급자인 일본인 교원이 많아지게 되면, 이는 각 군의 학교비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때문에 조선인 사회, 특히 학교비 재정이 어려웠던 농촌사회에서는 이러한 고액봉급자인 일본인 교원들을 굳이 임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4. 일본인 교원의 가봉(加俸) 등 추가수당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3분의 1 안팎에 달하는 일본인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조선인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192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신문들, 그리고 각 지방의 부·군 단위의 학교비평의회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그들은 일본인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가봉'의 문제를 들어 일본인 교원의 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가봉'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림 3〉은 공립 보통학교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의 봉급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일본인과 조선인 훈도의 월 평균 봉급(단위 : 圓)

* 자료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그림 3〉에 의하면, 1910년대 일본인 남자 훈도는 50원대 후반의 봉급을 받았고, 일본인 여자 훈도는 20원대 후반의 봉급을 받았다. 반면에 조선인 남자 훈도는 19원 안팎, 여자 훈도는 15원 안팎의 봉급을 받았다. 남자 훈도의 경우, 일본인은 조선인에 비해 거의 3배 정도의 봉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인 훈도에게는 '판임관봉급령(判任官俸給令)'(19103.28. 칙령 제 135호)이 적용되고, 조선인 훈도에게는 '조선인 문관(文官)의 분한(分限)과 급여(給與)에 관한 건'(1910.9.30. 칙령 제403호)이 적용되었다. 1919년 10월 조선인 훈도에 관련된 훈도에게는 '조선인 문관의 분한과 급여에 관한 건'이 폐지되고, 조선인도 일본인 훈도와 마찬가지로 '판임관봉급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조선인 훈도의 봉급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그림 3〉에서 보듯이 1920년 이후 1934년까지 일본인 남자 훈도의 봉급은 112~119원이었고, 조선인 남자 훈도의 봉급은 52~55원이었다. 일본인 여자 훈도의 봉급은 70~82원, 조선인 여자 훈도의 봉급은 45~48원이었다. 이와 같이 1910년대는 물론이고 1920년대 이후에도 일본인 훈도의 봉급이 조선인들의 봉급보다 2배 정도였던 것은 일본인 훈도에게만 주어지는 '가봉' 때문이었다.

가봉의 실상을 살펴보자. 일본인 교원은 본봉 외에 본봉(本俸)의 60%에 해당하는 가봉(加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숙사료(宿舍料), 조선어장려비(5원에서 30원까지의 5등급), 벽지수당(본봉의 1할), 국경수당(본봉의 2할) 등을 지급받았다.[42] 예를 들어 1912~1918년 사이 초임 일본인 교원의 경우, 초임 봉급 20~22원에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가봉(加俸) 12원과, 숙사료(宿舍料)를 더하면 40~46원이 되었다. 여기에 조선어장려비, 벽지수당, 국경수당 등을 받게 되면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교원의 초임 봉급(약 20원)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다.[43] 1932년 경성부 내 18개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은 76명이었는데, 가봉은 1인당 월 37원 20전이었으며, 합계는 연 3만 3,926원 40전에 달했다. 여기에 또 일본인 교장 17명과 교원 76명에게 주는 사택료가 1만 9212원에 달해, 1인당 월 평균 17원 20전 정도가 지급되었다.[44] 즉 교원 1인당 가봉과 숙사료가 월 54원 40전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1932년 일본인 남자 교원의 봉급 114원 가운데에는 본봉 60원과 가봉과 숙사료 54원 정도

42) 「의무교육을 목표로(6)」, 『동아일보』(1931.4.4).
43) 김광규, 앞의 논문(2017), 39면.
44) 「본봉외 지출 7만원 낭비」, 『동아일보』(1932.5.1).

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인 남자교원 봉급 114원은 조선인 남자교원 봉급 54원의 2배를 넘는 것이었다.

1936년 초에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북 익산군 여산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한 일본인 신임교원 이토 유키(伊藤勇)는 학생들에게 '부자 선생'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것은 비록 초임이었지만, 본봉 외에도 가봉으로 본봉의 60%를 더 받고, 또 숙사료로 15원을 받았으며, 연말에는 보너스로 가봉을 포함하여 본봉의 250%를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일본 본토의 교원들에게는 가봉이 없었고, 본봉이나 연말 보너스도 지급이 늦어지거나 목탄이나 쌀로 지급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의 일본인 교원이 유족한 편이었다고 회고하였다.[45]

가봉의 문제는 일본인 교장의 경우에 더욱 심각했다. 1936년 일본인 교장으로 판임관 2급봉을 받는 경우, 본봉과 가봉, 숙사료 등을 합하면 1년에 3,132원, 월 261원에 달하였고, 이는 조선인 교장이 받는 봉급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46] 그런데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은 대부분 일본인 교원의 차지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조선총독부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실시하면서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을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모두 바꾸었다.[47]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10월 '차별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18명의 조선인 교장을 임명하였다.[48] 이는 1919년 당시 전국 공립보통학교의 535개의 3.3%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32년 공립보통학교의 수는 1,800여 개였는데, 이 가운데 교장이 조선인인 학교는 40여개에 불과했다. 당시 조선인 교장 정원은 59명이었지만 그 숫자도 채우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 256명이 '교장 사무취급'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의 사무를 보았지만 정식 교장은 아니었다.[49]

총독부는 이처럼 조선인 교장을 좀처럼 임용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그 이유로 조선인 교원 가운데 교장이 될 수 있는 제1종 교원 자격을 가진 이가 드물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1종 교원이 되려면 경성사범학교의 연습과(1년 과정)를 졸업해야 했는데,[50] 연습과에 들어가는 것은 사범학교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 혹은 고등

45) 伊藤勇, 앞의 책, 31~32면.
46) 「교육조선의 선결문제」, 『동아일보』(1936.1.1). 판임관 봉급은 1급부터 11급까지 있었다.
47) 山下達也, 앞의 책, 34면.
48) 위의 책, 38면.
49) 「千八百餘 普校 조선인 교장 불과 四十」, 『동아일보』(1932.9.20).

여학교 졸업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경성사범 연습과 재학 중인 일본인 학생은 1921년~1929년 사이 매년 29~215명이었는데, 조선인 학생은 같은 시기 매년 100명 이하에 그쳤으며, 특히 초기인 1921~1925년의 졸업생은 모두 합해도 49명에 불과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입학시험 경쟁을 통하여 보통과에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웠고, 정원이 적은 연습과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웠다[51]. 그 이후 1926년 60명, 1927년 67명, 1928년 76명, 1929년 100명, 1930년 93명으로 연습과의 조선인 재학생도 점차 늘어났다.[52]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따라서 교장이 1종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이 교장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당시 『동아일보』는 "당국이 말하는 조선인 유자격 교원이 일본인과 균형을 이루자면 몇 십 년을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다년의 교육경력'과 '충분한 실력'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53]

이처럼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교원들에게는 여러 특혜가 주어졌다. 총독부는 왜 이와 같은 특혜를 주었을까. 우선 그들이 가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판임관(判任官)'이라는 '관리'의 신분으로서 '외지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54] 대한제국시기(통감부시기)에 조선에 온 일본인 교원들은 1907년 보통학교령 개정 때 판임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때에도 판임관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 직원의 가봉에 관한 건」과 「

50) 안홍선, 앞의 글, 57면. 경성사범의 보통과, 대구와 평양의 관립사범학교의 심상과 졸업생들은 제2종 교원(훈도) 자격을 얻었다.

51)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1종 훈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인식되어, 지원자가 쇄도했다. 1930년 봄 경성사범의 연습과는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남자의 경우 조선인 112명, 일본인 1,508명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조선인 112명, 일본인 173명에 달했다. 이들 일본인 가운데에는 일본 본토에서 중학을 졸업한 이들이 많았다(「사범연습과 지원자 전부가 일본 중학 출신. 일본인은 천오백명, 조선인은 백명」, 『동아일보』(1930.3.2)). 1931년에도 경성사범 연습과에는 일본 중학 졸업자들이 대거 몰려와 지원하여 그 수가 1,306명에 달했는데, 이에 비해 조선 내 일본인 지원자는 55인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때도 조선인 지원자는 127인에 불과했다(「관립사범의 연습과에 일본인 지원자 쇄도, 일본내의 지원자만 1천3백 명 돌파」, 『동아일보』(1931.2.24)).

52)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년판 참조.

53) 「다수 채용 않는 이유론 형식상 자격문제, 충분한 실력 가진 이는 다수, 학무국도 사실상 인정」, 『동아일보』(1932.9.20).

54) 일본 본토의 공립소학교 교원들은 '판임관대우'의 신분으로 판임관보다는 다소 봉급이 적고,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로부터 봉급을 받는 존재였다(池田雅則, 「明治の判任文官層—キャリア形成としての教育史における研究対象—」, 『兵庫県立大学看護学部・地域ケア開発研究所紀要』 Vol.22(효고현립대학 간호학부, 2015)).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 직원 사택료 지급규칙」에 의하여 가봉과 사택료를 지급받게 되었다.[55] 그런데 일본 정부는 조선만이 아니라 대만, 만주 등지의 이른바 '외지'에 나가 있는 관리들에게 '가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선의 보통학교에 재직하는 일본인 교원들은 다른 판임관 관리와 마찬가지로 고액의 봉급과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가봉을 받을 수 있었다.[56] 반면에 조선인 교원들은 같은 판임관이었지만, 외지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봉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 조선총독부는 왜 일본인 교원들을 굳이 고액 봉급자인 판임관으로 인정하고, 또 여기에 외지 수당인 '가봉'까지 주었을까. 1916년 5월 1일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 46인(학교장 37인, 교장사무취급 1인, 훈도 8인)을 대상으로 하여 열린 '내지인교원 강습회'에 참석한 아키야마(秋山) 시학관은 조선통치의 목적은 동화(同化)에 있으며, 동화는 주로 교육의 효과에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보통학교 교원의 위치가 극히 중대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이때 그는 조선의 동화정책에 대해 이론(異論)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논할 시기가 아니며, "저들(조선인-인용자)을 동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머릿속에 넣고, 이를 향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조선통치의 종국의 목적은 동화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동화를 위해서는 사법과 경찰의 제도 완비, 도로와 교통 통신의 시설 구축, 산업의 발달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정신적 동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동화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조선의 동화는 교육적 기초 위에 수립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실행은 교육가, 특히 보통학교 교원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내지로부터 교원을 조선에 채용함에 있어 애써 우수한 자를 뽑아 대우를 잘 해주고, 그 자격을 판임관리로 하는 제도를 만든 것도, 내지에 비하여 이와 같이 그 책임이 일층 중차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57] 즉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들을 판임관으로 임명하여 고액의

55) 本間千景, 앞의 책, 181~128면, 202면.

56)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등관 및 고등관대우는 본봉의 40%, 판임관 및 판임관대우는 본봉의 60%를 가봉으로 받게 되어 있었다(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의 가봉에 관한 건, 1913년 3월, 총독부령 제36호). 당시 다른 '외지'의 일본인 관리들에게 주어진 가봉은 臺灣에서는 고등관 50%, 판임관 60%, 關東州에서는 고등관 50%, 남양은 장관 90%, 고등관 100%, 판임관 120%, 樺太에서는 고등관 50%, 판임관 60% 등이었다(「각 식민지별 가봉감액율」, 『동아일보』(1931.6.12)). 이들 가봉은 1931년 8월 다소 감액되었다(「식민지 가봉문제, 상금 절충 중」, 『동아일보』(1931.8.14)).

57) 「공립보통학교 내지인 교원 강습회 상황」, 『조선총독부관보』(1916.6.21).

봉급과, 이에 덧붙여 '가봉'과 '숙사료'까지 지급하는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은 그들이 조선통치의 궁극의 목적인 동화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58]

5. 조선인측의 일본인 교원 임용에 대한 비판

1) 언론의 일본인 교원 임용에 대한 비판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된 이후, 이들 신문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언론에서는 수시로 '민족간 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리와 교원의 가봉 문제는 민족간 차별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1920년 5월 19일자 「무차별인가, 대차별인가」라는 연재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 소위 '가봉'이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사람에게만 있고, 조선사람에게는 한 푼도 없으며, 그 이외에도 일본 사람 관리에게는 후한 사택료나 좋은 관사를 주는 고로 이럭저럭 계산을 하면 지금도 일본 사람 관리는 같은 관등에 있는 조선 사람 관리보다 평균 곱절은 되는 셈이라. 그러면 이전에 3배, 4배 되던 차별이 지금은 곱절밖에 아니 되었으니까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기고만장일 것이로되, 재등(齋藤)씨의 소위 무차별은 차별이 없다 함이오, 차별이 적다 함은 아니라. 비록 한 푼 반 전을 차별할지라도 차별은 차별이거늘, 하물며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 곱절이나 되는 차별을 하면서 차별을 없이 하였다 함은 알 수 없는 말이로다. 한 사람에게는 오 원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십 원을 주며 이것과 저것과 똑같은 것이라 하면, 누가 곧이들을 사람이 있을까.[59]

---

58) 일본인 학교인 소학교 훈도나 교장으로 임명된 이들에게는 '동화'교육의 임무가 없는데 왜 같은 판임관으로 대우를 해주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소학교에서 몇 년 근무한 뒤에는 보통학교의 교원이나 교장으로 전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하였다.

59) 「무차별인가 대차별인가 (6)」, 『동아일보』(1920.5.19).

즉 1910년대에 3~4배나 차이가 나던 일선인 관리들의 봉급이 1920년 이후 2배 정도로 된 것을 가지고 조선총독부가 생색을 내고 있지만, 사이토 총독이 '무차별'을 약속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총독부측은 외지에 근무하는 일본인 관리들에게는 모두 동등한 가봉과 사택료 등을 주고 있다면서, 조선의 일본인 관리와 교원에게 특별히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조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20년 6월 총독부 아오키(青木戒三) 서무부장은 가봉과 숙사료 지급을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원래 재선(在鮮) 일본인 관리에게 재근가봉(在勤加俸) 및 숙사료를 지급함은 풍속, 관습, 기후 등이 태어나 살던 곳과 현저하게 다른 지방에 와서 제반 불편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이들 생활의 불편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는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대만, 관동주, 가라후토(樺太:사할린) 등에 재근하는 내지인 관리에 대해서도 상등한 지급을 하며, 여러 외국의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다.[60]

이후 언론의 비판의 초점은 주로 일본인 교원의 임용이 학교비 예산에 부담을 준다는 데에 모아졌다. 학교비는 부와 군 단위에서 공립보통학교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거두는 지방세의 하나였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상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교장과 교원의 채용을 조선인 중에서 행하라고 요구하고, 조선인도 "처음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지라도 사범교육으로써 잘 교도하고 양성하면 선량한 교장이나 교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 하면 경상비의 절약은 대단히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1]

동아일보의 한 독자는 투고를 통하여 약 1천개 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5천여 명인데, 이들 "5천여 명 중 일본인 교원이 1천5백여 명, 즉 3할이나 점하였다는 것이 너무 과대한 수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교장 이하 학감, 주임, 중요한 지위를 점한 자는 오로지 일본인 교원이 되고 조선인 교원은 무능력한 지위에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학교 경비의 대부분을 점하는 거액의 봉급을 식(食)하는 자가 일본인 교장 이하 일본인 교원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

60) 「일본인 관리 평등대우에 就하야, 青木 庶務部長 談」, 『동아일보』(1920.6.9).
61) 현상윤, 「긴급한 보통교육의 보급에 대하야-비참한 현상과 응급의 대책」, 『동아일보』(1924.1.1).

경비의 부족을 탄하면서 고봉자(高俸者)의 일본인 교장과 교원을 다수 채용하는 이유를 오인은 학무당국자에 묻고자 한다."라고 썼다. 그는 또 "전국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 자리에 대하여 만일 조선인이 이를 대신한다 하면, 현재 공립보통학교 경비 중에서 약 20만원의 절약이 생길 것이요, 이에 덧붙여 주임교원까지 조선인 교원이 대신한다 하면 약 1백만 원의 절약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보통학교 1개교에 대한 경비를 평균 1만원이라 할진대, 다시 120여 교의 보통학교를 증가할 수가 있고, 이를 설비비에 보충한다 하면 현재보다도 일층 완전한 보통학교를 기성(期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2] 일본인 교장과 교원을 조선인으로 대체하여 그 봉급을 보통학교 증설이나 시설 보완의 예산으로 쓰자는 주장이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하여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1927년 경성부의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보통학교 교장으로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지 말고 능률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손색이 없는 조선인 교원을 채용할 것 같으면 경성부에만 있어서도 매년 보교 교원 봉급의 약 8분, 즉 2만원 내외는 절약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전 조선의 보통학교 재정으로 확대하여 보면, "전 조선 보교의 경상비를 약 1천만 원이라고 하면 교원의 봉급이 약 6할에 해당할지니, 6백만 원이 보교 교원의 봉급이 될 것이오. 그 6백만 원이라고 하는 교원 봉급 중에서 경성부의 통계에서 얻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인 교장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조선인 교장을 채용하면 그 6백만 원 중의 8분, 즉 48만 원 가량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48만원을 가지고 능력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조선인 교장을 채용하고, 이를 보통학교 확충에 쓴다 하면 당시 매우 심각하던 보통학교 입학난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3]

동아일보는 1928년의 사설에서도 "마산에서도 학교비평의회 석상에서 학교경비 문제로 토의하던 중 고급(高給)인 일본인 교원 2인을 도태하면 조선인 교원을 4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그리된다 하면 부족액 3600여원의 반이 보충된다고 지적한 후, 이것을 들어서 당국자에게 (일본인 교원의 도태를 - 인용자)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마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오, 전 조선 각지에 있는 문제이니 냉정히 고려할 바라고 믿는다."면서, "조선인 교원이 현 보통학교 교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하

62) 「SU생, 조선인 교육상황과 其內容 개선에 대한 입론」, 『동아일보』(1924.3.17).
63) 사설 「普校 財政과 朝鮮人 校長」, 『동아일보』(1927.3.19).

면, 또 다시 의론할 여지가 있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상에는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그 비용이 반액으로 된다 하면, 당연히 조선인을 채용할 바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64] 역시 고액 봉급자인 일본인 교원 대신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주요섭은 1930년 동아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총독부가 추진하는대로-인용자) 만일 1면 1교가 실시되면 조선에는 보통학교 2,493교에 교원이 1만 4,546인으로 생도 71만 7,984명(학령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겠고, 경상비는 매년 2,429만 7,879원을 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그러나 이 경상비에 있어서는 절약할 방도가 여럿이 있다. 그 중 제일 중대한 것은 일본인 교원 대신 조선인 교원을 쓸 것이니, 현금 봉급 지불 상태로 보면 일인 교원 2인 사용하는 돈으로 조선인 교원 3인 내지 4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니, 현 일인 교원이 2,398인이란 다수임을 볼 때 그들을 조선인으로 대용(代用)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십만 원을 경제(절약-인용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65] 그는 일본인 교원을 쓰려면 가봉을 없애고 조선인 교원과 꼭 같게 하든지 혹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거든 일본인 교원을 줄이고 그 대신 조선인 교원을 쓰고, 일본인 교장 대신 조선인 교장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에 있어서 공립보통학교 교원은 판임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일본인 교원은 조선인 교원보다 본봉 외에 가봉으로 본봉의 6할을 더 받는다. 그렇다고 일본인 교원이 가르치는 시간이 많다거나 능률이 낫다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인 교원과 꼭 같은 일을 하고도 다만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특전 때문에 이런 격외(格外)의 고급(高給)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66]

조선일보도 역시 같은 논조로 일본인 교원 임용에 반대하였다. 이 신문은 아래와 같은 기사에서 이 문제의 논점을 잘 요약하여 보여주었다.

> 소화 6년 5월 현재 학교 수가 1,770여개 교에 일본인 교원은 남자 2,275명, 여자 310명, 합계 2,585명으로, 조선인 교원 남자 5,874인, 여자 640인, 합계 6,514인에 비하여 4할에 가까운 3할 8분을 점령하고, 교원 총수 9,099명에 대하여 3할 가까운 2할

64) 사설 「교육경비와 교원의 임용」, 『동아일보』(1928.4.2).
65) 주요섭, 「조선교육의 결함(2)」, 『동아일보』(1930.9.4).
66) 주요섭, 「의무교육을 목표로 (5)」, 『동아일보』(1931.4.3).

8분을 점령하고 있다. 이상의 숫자에 의하여 재정상 문제로 보면, 일본인 교원은 가봉 등을 합하여 같은 자격을 가진 교원이라도 조선인의 봉급의 약 배를 먹게 된다. 이것을 경상비 총액 1,120만 1천원 중 인건비를 약 8할로 계상하여 896만 원 가량으로 계산하면, 일본인 교원은 수효에 있어서는 불과 2할 8분밖에 안 되나, 봉급액으로는 그 배액인 5할 6분을 차지하게 되어, 511만여 원을 먹게 된다. 이것을 조선인 교원으로 바꾼다면 2천5백 명의 교원을 더 채용하든가 또는 학급 경상비 1,300원으로 계산하여 1,900여개 학급을 증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것을 실제 문제로 당장에 실시하기는 희망하기 힘드나, 일본인 교원보다 조선인 교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궁핍한 지방 학교비 재정을 위하여 극히 유리한 것이 될 것이다.[67]

결국 논점은 일본인 교원의 임용을 중지하고 조선인 교원을 임용하라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도 다음 날 사설을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현재 일본인 교원을 씀으로 말미암은 손실이 그 얼마나 크다 할 것인가."라고 비판하였다.[68]

2) 학교비평의회의 일본인 교원 임용에 대한 비판

1920년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부(府)・군(郡)・도(島)에 학교비평의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비(學校費)란 주로 보통학교의 교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 군, 도민들로부터 거두는 부과금을 중심으로, 사용료, 보조금, 재산수입, 기타 학교비에 속한 수입으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부과금은 부・군・도 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토지나 가옥을 소유한 조선인에게 부가되는 세금이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역 또는 현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비의 중심이 되는 부과금은 지세와 시가지세의 경우는 본세의 100분의 30 이내, 호세(戶稅)의 경우 납입의무자 1인 당 40전, 가옥세의 경우 조선인 1호당 10전의 부가금을 걷는 것으로 했다.

학교비평의회는 이러한 학교비 운용에 관하여 부윤, 군수, 도사(島司)에게 자문하

67) 「보교 교원 채용문제, 조선인 교원을 채용한다면 천 학급을 증설, 2천5백 훈도 증원 가능」, 『조선일보』(1933.6.22).
68) 사설 「조선인 교원을 대용하라」, 『동아일보』(1933.6.23).

는 기구로서, 부윤・군수・도사와 학교비평의회원으로 구성하며, 부윤・군수・도사가 의장이 되도록 했다. 평의원의 정원은 부에는 6인 이상, 20인 이하, 군과 도에서는 면(面)의 수와 같이 하도록 했다. 평의회원은 부에서는 선거를 하고, 군과 도에서는 군수나 도사가 임명하되,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부의 학교비평의회원의 자격(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학교비 부과금 연액 5원 이상을 납입한 자로 했다. 군과 도의 학교비평의회원은 면협의회원에서 선거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자격은 부의 경우와 같았다.[69]

학교비 평의회원은 그 선출과정에서 볼 때 대체로 식민통치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총독부 당국은 학교평의회원 선거권자는 납세 자격 요건의 관계상 대체로 지방의 유식자이면서 유산계급이고, 사려가 깊고 온건하며 상당한 견식을 갖춘 이들이라고 분석하였다.[7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비평의회원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인 교원과 교장에 대한 '가봉' 제도의 문제점을 회의석상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봉'이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주는 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부담하는 공립보통학교 교육재원인 '학교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립보통학교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학교비평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25년 3월 전국 각 부・군에서 학교비평의회의 예산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평남 성천의 학교비평의회에서는 평의원들이 일본인 교원 8명의 봉급은 조선인 교원 16명의 봉급에 해당하니, 이들을 조선인으로 채용한다면 절약되는 금액으로 월사금을 내지 못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동 1만 6,7천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71] 평북 선천의 학교비평의회에서도 "아직 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면(面)에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사택비와 가봉을 지불해야 하는 일본인 교원을 줄이고 조선인 교원을 많이 채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72] 경남 창녕의 학교비평의회에서도 평의원들이 창녕공립학교 교원 11명 가운데 일본인 교원이 5명이나 된다면서, 이는 다른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일로서

69) 「변개된 지방제도」, 『동아일보』(1920.7.30).
70) 朝鮮總督府內務局, 『改正 地方制度實施概要』(朝鮮總督府內務局, 1922), 34면.
71) 「봉급차별을 통론, 1대 2의 불합리한 현상, 성천학교비평의」, 『동아일보』(1925.3.2).
72) 「宣川學校 評議」, 『동아일보』(1925.3.5).

경비에 큰 부담이 되니 이들을 내보내고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라고 주장하였다.[73] 황해도 황주의 학교비평의회에서는 “일본인 교원에게 가봉 주는 것을 가졌으면 1면 1교를 설비하고 급료를 지변(支辨)할 터인데, 하필 일본인 교원을 많이 사용함은 경비와 아동교육에 필요치 아니한 즉, 교장 외에는 전부 조선인을 사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74]

이러한 비판은 특히 일본인 교장의 가봉 문제에 집중되었다. 황해도 재령군의 학교비평의회에서 정찬유 의원은 조선인 교장은 본봉 80원만을 받는데, 일본인 교장은 본봉 100여원에다가 가봉과 사택료를 본봉 이상으로 받으니, 학교 경비에 곤란이 막심하다면서 교장을 조선인으로 교체하라고 주장하였다.[75] 이러한 비판은 도평의회에서도 나왔다. 1927년 황해도 도평의회에서 김봉도(金鳳都) 의원은 “보통학교 교장은 조선인의 사상, 사정, 습관 등에 대한 이해가 우원(迂遠)한 일본인 교장을 채용함으로써 그 폐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조선인보다 봉급이 고등(高騰)한 일본인만 채용하여 인건비만 증가되었으니, 조선 전체를 통하여 학급이 부족하여 학업을 불수(不修)하는 아동이 몇 만이며, 그로 인하여 문화발달이 지완(遲緩)됨이 얼마인가. 일본인 교장을 채용하는 용비(冗費)를 절감하여 그 비용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화염같이 치미는 수만(數萬) 아동의 학업욕을 만족시키지 않고, 도리어 조선인 중에는 유자격자가 없다고 무모한 궤변만 발휘하니 조선인 교육의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하였다.[76]

매년 3월 학교비 예산 심의를 위해 학교비평의회가 열리면 그때마다 평의회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비평의회원들의 비판은 더욱 고조되었다. 1927년 전북 김제군의 학교비평의회에서는 김연식 의원이 “군내 용지(龍池), 쌍감(雙坎), 공덕(孔德) 등 각 면에는 아직도 학교의 설치가 되지 못하여 아동 교육에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총 세출의 5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교원 급료는 고급자(高給者)인 일본인 훈도의 봉급과 가봉 등이 대부분이므로 되도록 고급자를 채용치 말고 가봉도 숙

73) 「창녕학교 평의, 조선인교원을 채용하라」, 『동아일보』(1925.3.14).
74) 「黃州 각교 예산, 작년보다 감소」, 『동아일보』(1925.3.24).
75) 「교장과 교원에 조선인을 주장」, 『동아일보』(1927.3.29).
76) 「조선인교장 채용과 수업료 전폐를 주장」, 『동아일보』(1927.3.2).

사료도 없는 조선인을 채용하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고, 이어 매년 조선인 채용설을 말하여도 당국은 한 번도 학교평의회의 의견을 실현치 않음은 곧 학교비평의회를 무시함이라."하면서 분개해 했다고 한다.[77] 1929년 평남 진남포의 학교비평의회에서 의원들은 "우리 학교비평의원은 년년(年年) 회의 때마다 가봉(加俸) 받고 고급(高給) 받는 일본인 교원의 수를 감하여 달라고 요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인 교원의 수가 증가될 뿐이오, 감원됨이 무(無)하다"고 비판하였다.[78] 황해도 안악군의 한 학교비평의회원은 "20년 전 합병 당시로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없이 한다 하면서도, 통계상으로 보아 조선 내 공직자의 7할 이상이 일본인이오, 봉급은 조선인보다 4배를 더 주니, 이같이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소?"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였다.[79] 경북 달성군 학교비평의회에서도 "경비 축소를 요할 차제에 일본인 교장에게 약 3천 원의 가봉까지 주어 가면서 채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소학교에 대해서는 가정교육 연락상이든지 초학년 아동 일어 미해자(未解者)의 직접 훈련상이든지 풍토 인정에 관숙(慣熟)치 못한 등 다방면으로 적의(適宜)의 점을 느끼지 못하겠은 즉, 조선인 교장을 채용하고 가봉 주는 것으로 학년 연장이든지 학교 신설이든지 하여 달라고 만장일치로 역설"하였다고 한다.[80] 예산 절감, 조선사정에 미숙함 등을 들어 평의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일본인 교장 대신 조선인 교장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가봉 문제에 대한 학교비평의회의 비판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31년 3월 함남 영흥군 학교비평의회에서 한 의원은 예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면서 고급자(高給者) 교원을 정리하고 그 예산으로 수업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무산아동의 구제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하였다.[81] 같은 시기 거창, 선산, 정주, 영양, 순천, 곡산, 괴산, 보은, 재령, 영동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학교비 평의회에서도 높은 봉급을 주는 일본인 교장과 교원을 정리하고 인건비가 낮은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여 수업료를 전폐 혹은 반감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

77) 「조선인 채용이 경비의 절약 김제 學議 痛論」, 『동아일보』(1927.3.18).
78) 「"日 訓導 감원코 高等科 설치하라" 南浦 學議員의 절규」, 『동아일보』(1929.3.15).
79) 「"부결도 무효인데 자문이 무슨 필요?. 원안 통과라는 보고만 하자." 安岳 學議員의 憤言」, 『동아일보』(1929.3.27).
80) 「학교 증설을 요구, 日 校長 高給으로, 達城 학교평의원회」, 『동아일보』(1927.3.18).
81) 「문제되는 인건비, 조선인 교장 채용을 종용, 영흥학교비 평의회」, 『동아일보』(1931.3.22).

다.[82] 영흥군의 경우에, 1932년 9개 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원의 가봉이 5,340원이었는데, 이를 철폐하면 수업료를 3할 5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83] 1930년대 초 농업공황으로 농촌 경제가 어려워 학생들이 수업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수업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고액봉급자인 일본인 교원 대신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932년 3월에도 진주, 순천(평남), 영흥, 개성, 홍천 고원 등지에서 열린 학교비평의회에서 같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개성의 한 의원은 "훈도 41인의 급료가 3만원인데, 교장 3인의 급료가 7천여 원이니 너무나 차이가 있다."면서 교장의 급료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비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군수는 "우량교장을 채용하려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가봉 주는 일본인을 줄이라는 말에는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내규가 있어 조선인만 많이 채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84] 여기서 말하는 '내규'란 정원의 30% 내외를 일본인 교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함남 고원의 학교비평의회에서도 일본인 교장을 채용하지 말고 조선인 교장을 채용하라는 말에 당국자는 "이런 인사 관계는 상부 관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답하였다.[85] 이는 도(道) 내지는 조선총독부의 교원 인사에 대한 기본방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학교비평의회 뿐만 아니라 학부형회에서도 거론되었다. 1930년 함남 안변군 신고산 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에서는 일본인 교원 채용 문제와 관련하여 장시간 논란이 이어졌고, 3학년까지는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학교 당국자에게 교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86]

이와 같은 가봉을 둘러싼 논란은 비록 빈도수는 줄어들었지만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학교비평의회가 아닌 도회와 부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1931년부터는 부(府)의 경우에 학교비평의회가 해산되고 부회로 소관이 넘어갔기 때문에 부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36년 3월 11일 인천 제2교육부

82) 「인건비를 삭감하라, 거창학교비평의회」, 『동아일보』(1931.3.24); 「일면일교 촉성, 순천 학평회」(1931.3.28); 「"高給교원 정리하고 수업료를 감면하라", 월급 적게 주고 조선사람 쓰라, 각지 學議員의 절규」(1931.3.29).

83) 「지방잡신」, 『동아일보』(1932.3.31).

84) 「다년 현안인 제3공보 실현,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파란. 개성교육회의 경과」, 『동아일보』(1932.3.23).

85) 「高原학교비 평의회 개최」, 『동아일보』(1932.3.31).

86) 「日本人敎員 採用치 말 것, 新高山公立普通學校 學父兄會서 決議」, 『조선일보』(1930.04.10).

회에서는 학교 예산 문제를 다루었는데, 고급자(高給者)인 일본 본토인 교원을 저급자(低給者)인 조선인 교원으로 바꾸어 빈약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원들의 말에 인천부 당국자는 도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자신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였다고 한다.[87] 이 문제는 부회만이 아니라 도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1936년 3월 10일 평북도회에서는 영변 출신 홍재경 의원이 의무교육을 하루빨리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보교(普校)의 수업료는 하루바삐 철폐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도 재정문제로 시행 못한다면 급료 비싼 일본 내지인 교원 (1인 평균 급료 1천5백 원)을 쓰지 말고, 조선인 교원 (1인 평균 급료 5백 원)을 사용하면 막대한 재정이 남을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 교원의 가봉이 학교비평의회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문제점은 학교비평의회, 부회, 도평의회(도회) 등 여러 자문기관에서 계속 거론되었지만, 군이나 부는 물론 도에서도 이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5. 맺음말

이 글은 일제하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인 언론이나 학교비평의회, 부회 등에서 조선인 의원들이 이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한 글이다.

첫째는 공립보통학교에 일본인 교원이 지나치게 많이 임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19년 이후 '3면 1교'정책으로, 1929년 이후 '1면 1교' 정책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1938년 이후에는 학급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립보통학교에 채용된 일본인 교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1910~45년 사이 일본인 교원은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27~48%를 차지하였다.

87) 「고급자 정리하고 저급자 교원 채용하라. 그 비용으로 미취학아동 수용, 인천 제2부회에서 통론」, 『동아일보』(1936.3.11).

88) 「교육비 國補 공평과 의무교육의 실시, 급료 싼 조선인을 쓰라, 평북도회서도 논란」, 『동아일보』(1936.3.10).

둘째는 공립보통학교에 임용된 일본인 교원들이 학력과 경력면에서 조선인 교원보다 우세한 고액 봉급자들이어서 학교비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원의 충원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제1기는 1910년부터 1924년으로, 조선의 교원양성소와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출신들로는 교원을 다 충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약 70% 추정)의 일본의 사범학교 출신으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들이 교원으로 영입되었다. 제2기는 1925년부터 1937년까지로, 조선에서도 관립(경성, 대구, 평양) 및 공립(도립) 사범학교 보통과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신규 교원의 다수를 점하고, 소수의 교원이 일본에서 영입되었다. 제3기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로, '초등교육확충계획'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보통학교의 학급수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매년 5백~7백 명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인 교원이 본국으로부터 영입되었고, 비슷한 수의 조선 내 관립사범학교 출신 일본인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한편 1937년 당시 함경남북도 공립보통학교 교장 60명의 사례를 보면, 당시 조선의 공립보통학교 교원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각 부(府)・현(縣)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5~15년의 소학교 교원 경력을 가진 뒤, 1920년대에 조선으로 건너온 이들이 상당히 많았고, 따라서 이들의 호봉은 조선인 교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는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 교원(훈도와 교장)들은 조선인 교원들과는 달리 가봉, 사택료, 벽지수당 등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판임관 대우였던 일본 본토의 교원들과 달리, 조선의 일본인 교원들은 판임관의 신분이었고, 외지의 판임관은 본봉의 60%를 가봉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추가수당을 일본정부가 총독부에 주는 교부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내는 지방세인 학교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고액봉급자인 일본인 교원 대신 조선인 교원을 채용하라고 주장하였다. 또 학교비 예산을 검토하는 학교비평의회나 부회에서 조선인 의원들은 일본인 교원들이 받는 '가봉'으로 인하여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재정인 '학교비'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 일본인 교원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제 말기까지 일본인 교원의 수를 공립보통학교 교원의 30% 내외로 계속 유지하였으며, 1942년에는 48%까지 올렸다. 총독부가 일본인 교원들에게 '가봉'의 특혜를 베푼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궁극 목적인 '동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인 교원은 그러한 '동화교육'의 첨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KCI

투고일 18.10.08 심사완료일 18.11.03 게재확정일 18.11.14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경성사범학교 편, 『경성사범학교총람』 1, 1929.
梁村奇智城 편, 『新興之北鮮史』, 조선연구사, 1937.
染川覺太郎 編, 『全南事情誌』, 전라남도사정지간행위원회, 1930.
畑本逸平 편, 『咸鏡南道 事業と人物名鑑』, 함남신보사, 1927.

稻葉繼雄, 『舊韓國~朝鮮の日本人教員』, 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2001.
朴永奎, 「植民地朝鮮における教員養成に關する研究」, 博士論文, 九州大學 大學院 人間環境學府, 2005.
本間千景, 『韓國'併合'前後の教育政策と日本』, 京都 : 思文閣出版, 2010.
山下達也, 『植民地朝鮮の學校教員-初等教員集團と植民地支配』, 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2011.

金廣珪,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1921) 조선인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연구』 25, 역사학연구소, 2013.
_____, 「근대개혁기~일제강점기 교원시험의 변천」, 『역사교육』 132, 역사교육연구회, 2014.
_____, 「근대개혁기~일제강점기 관공립 초등학교 교장 인사와 조선인 교장」, 『한국교육사학』 제37권 제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5.
_____, 「1910년대 재조선 일본인 교원의 양성과 인사」, 『한국교육사학』 제39권 제3호, 한국교육사학회, 2017.
_____, 「일제강점기 직원록과 신문자료를 통해 본 교원배척 동맹휴학의 양상 - 1920년대 보통학교를 중심으로 - 」, 『역사교육』 143집, 역사교육연구회, 2017.
김성학, 「경성사범학교 학생훈육의 성격」,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집, 경희대 교육문제연구소, 1999.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재조일본인 교원 통제 : 조선교육(연구)회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5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박찬승,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배척 동맹휴학」, 『역사와현실』 104집, 한국역사연구회, 2017.
안홍선, 「경성사범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방법론 연구」, 『교육사학연구』 15, 교육사학회, 2005.

The Employment of Japanese Teachers by Public Elementary Schools and the Opposition from Korea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Park, Chan-seu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 larg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worked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Korea. In 1920s and 1930s, Korean journalists and Korean members of Council for School Expense opposed to the employment of Japanese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Why did they oppose to it?

Firstly,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were too much.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creased sharply as a result of 'one elementary school per three myeons' after 1919 and 'one elementary school per myeon' after 1929. As the number of classe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1939,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working for the public elementary schools rose accordingly.

Secondly, Japanese teachers received higher salary than Korean teachers, as most of them graduated from colleges of education in prefectures of Japanese main land, worked for elementary schools for 5 to 15 years in Japan, and then moved to Korea in the 1920s. Therefore they could get higher salary than Korean teachers.

Thirdly, Japanese teachers who stayed in Korea were provided with benefits such as additional allowance, housing fare, and extra pay for working at an isolated area. Therefore Koreans demanded that the number of Japanese instructors and principals be reduced, arguing that personal expenses were exorbitantly paid due to additional allowance for the Japanese teachers, which put a heavy burden on the public

* Hanyang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finances.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vided Japanese teachers with additional allowance was that Government-General believed that education was vital in order to make all the Koreans assimilate with Japanese, the ultimate goal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Government-General considered Japanese teachers as the advance guards for the so-called ‘assimilation education.’

In spite of Korean’s oppositi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ntinued to maintain the number of Japanese teachers at 27%~48% of the total public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til the closing day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Keywords : employment of Japanese teacher, Japanese principal, public elementary school, council for school expens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KCI